

이 현 중 / 한국통신기술협회 (TTA) 국제협력국 1부장

1. 서론

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) 전권위원회의 (Plenipotentiary Conference)가 1994년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본 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ITU 헌장 및 협약에 의거 한 ITU 최고 의결기관인 이번 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로, 199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추가 전권위원회의에서 ITU 헌장과 협약을 대폭 개정한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이며, 신 헌장과 협약이 발효(1994년 7월 1일)후 약 2개월 반만에 개최되어 현재 가맹국 184개국, 이사국 43개국으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TU 역사 이래(1865년 5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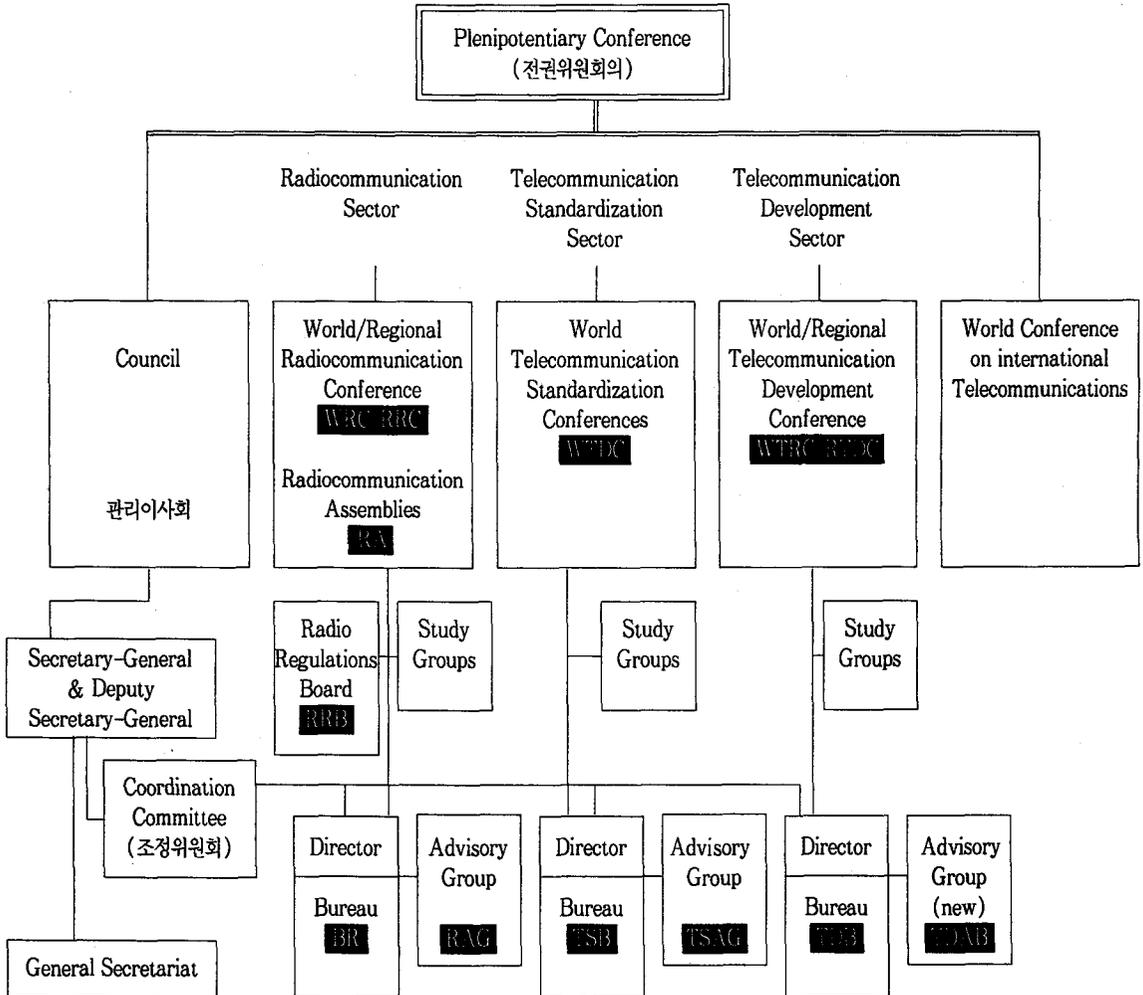
17일) 최대 행사가 될 것이다.

2. ITU의 역사

- 1) 129년전 1965년 5월 17일 20개국 국가 원수들을 파리에 초청, 현 ITU의 모체가 된 만국통신연합을 설립하였고 국제전신조약과 전신규정을 작성, 서명하였다.
- 2) 1906년 국제 무선전신연합이 결성되어 무선전신조약이 탄생하였으며
- 3) 1932년 전신연합과 무선전신연합이 마드리드 회의에서 80개 국가 62개의 사기업 및 국제기구가 참석 통합하여 오늘날의 ITU가 되었음.

3. ITU의 구조

ITU 조직도



※ 약어

- GCR : Group Consultatif de Radiocommunication(불어)
- RRB : Radio Regulation Board
- TSAG :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
- TDAB :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Board
- CCIR Recommendation → ITU-R Recommendation
- CCITT Recommendation → ITU-T Recommendation

4. 전권위원회의 (Plenipotentiary Conference) 역사

전권위원회의는 ITU의 최고기관으로 과거는 7~8년에 1회 개최하였으나 새 ITU 헌장에는 4년마다 1회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다.

해방후 전권위원회의 개최사항

| 년도 | 장 소 | 주 요 결 정 사 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947 | Atlantic City (미국) | ITU 기본체제확립, 관리이사회, 국제 주파수 등록 위원회 |
| 1952 | Buenos Aires (아르헨티나) | 새로운 국제 주파수표 결의 |
| 1959 | 제네바 (스위스) | 연합의 목적 및 관련기관의 임무 |
| 1965 | Montreal (캐나다) | 주관청 회의를 세계 지역 주관청 회의로 구분함 |
| 1973 | Malaga Torremolions (스페인) | 우주 통신용 주파수와 정지궤도의 공평한 사용을 규정 |
| 1982 | Nairobi(케냐) | 개도국에 기술협력 촉진과 제공을 연합 목적에 추가 |
| 1989 | Nice(프랑스) | ITU 헌장과 협약으로 분리 BDT(전기통신개발국) 설치 |
| 1992 | Geneva(스위스) | 현행 ITU 헌장과 협약을 채택 표준화, 전파, 개발의 3분야로 개편 |

5. 교토 전권위원회의

가. 회의의 구성(예상)

- 본회의(Plenary meeting)
- 제1위원회 : Steering Committee -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장,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회의 일정 및 운용 조정
- 제2위원회 : Credentials Committee - 대표단의 신임장 심사
- 제3위원회 : Budget Control Committee - 전권위원회의 개최에 소요된 경비의 승인
- 제4위원회 : Strategic Policy & Plans - 전략 정책 및 계획 검토
- 제5위원회 : Constitution & Convention - 헌

장, 협약에 관한 사항

- 제6위원회 : Staff Matters - 직원 관련사항의 심의
- 제7위원회 : Finances of the Union - 연합의 결산승인, 1998년도까지의 경비 한도액 작성
- 제8위원회 : Editorial Committee - 편집

6. 예상되는 주요 의제 및 일정

ITU헌장 및 협약의 개정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며 예상되는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.

가. 연합의 기구 신설

- 세계 전기통신 정책회의 신설(일본 제안) 통신 정책포럼(혹은 세계통신정책회의)신설이 요청

되며, WTO의 등장 등 세계전기통신 정책 및 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표준, 전파, 개발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회원국들간에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기초하였다. 한국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고서를 제출하였다.

자는 제안이다.

민간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반대할 가능성 있다.

나.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(LDCs)에 대한 ITU 원조(마다가스카르)

- 급변하는 전기통신 정책 및 환경에 적응토록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훈련하고 향상시키며 민영화 사기업 전후 과정의 지원 요청

라. 예산, 결산 및 직원의 급여, 수당에 관한 사항(사무국)

마. 이사국 순환 선출 제도 제안(포르투갈, 네델란드)

- 이사국이 43개국이며 A, B, C, D, E 지역으로 구분되며 역대 이사국중 3회이상 연임된 국가가 26개국인 반면 한반도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는 국가도 있다.

전회 이사국 선출시 득표수가 40% 미만국은 차기 1회에 한하여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지는 제안이다.

다. 민간분야의 ITU 활동 참여 확대 요청(스웨덴)

- 현재 공인된 운영기관 이외 민간분야를 참여케하

참고: 지역별 이사국수 및 이사국(니스 전권위원회)

| 지역 | A | B | C | D | E |
|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국가수 | 32 | 25 | 12 | 51 | 46 |
| 후보국 | 26 | 9 | 4 | 21 | 17 |
| 당선국 | 8 | 7 | 4 | 12 | 12 |
| 당선국 |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멕시코 자마йка 콜롬비아 쿠바 | 서독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| 불가리아 체코 소련 동독 | 알제리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메룬 탄자니아 세네갈 케냐 말리 브르키나화소 모로코 베닌 카보베르데 | 일본 사우디 태국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호주 쿠웨이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|

바. 선거

- 사무총장 1
- 사무차장 1
- 표준화국장 1
- 전파국장 1
- 개발국장 1
- 전파관리위원(비상임) 9명
- 이사국 선출(43국) - 이사국 수가 4개국 증가 예상됨

사. 회의 일정

- 9.18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
- 9.19 수석대표회의, 개회식
- 9.20~23 본회의-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장, 부의장 선출, 위원회 구성, 정책연설, 선거일정, 위원회 심의
- 9.26~30 본회의-선거(사무총장, 사무차장, 전파통신국장, 전기통신표준화 국장, 전기통신 개발국장)
- 10.3~7 본회의-선거(전파관리위원회 위원, 이사국 선출)
- 10.10~13 본회의-현장 조약 개정안 채택, 결의안 채택
- 10.14 서명, 폐회식

7. 결론

- 1) 한국은 체신부 주관하에 각 기관이 망라된 의제 분석반 및 홍보반을 편성 의제분석, 홍보책자제작, 선물준비 등을 하고 있다.
- 2) 아국은 현재 이사국으로서 재 출마 당선되어야 하겠다.
- 3) 현 ITU 헌장 및 협약이 94. 7. 1부로 발효되어 자구 수정 및 모순점의 보완이 있을 것이다.
- 4) 저개발국가 개발비용을 ITU에서 부담하자는 요청이 예상된다.
- 5) INTELSAT, INMARSAT 등 각국과 관련된 위성 통신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.
- 6) 한국 대표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석 대표단 9명, 외무부 5명, 실무대표단 25명 계 39명이며 외무부 최종 결정과정에서 인원 축소가 예상된다.
- 7) 정보통신 사회로 변모하고 활동권이 지역에서 세계로 넓혀짐에 따라, ITU에서 적극 활동이 요청되며 세계의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우리의 정보통신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, 중단파 및 위성통신 대역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적절한 할당 및 위성의 위치 확보 등에 우리의 몫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.